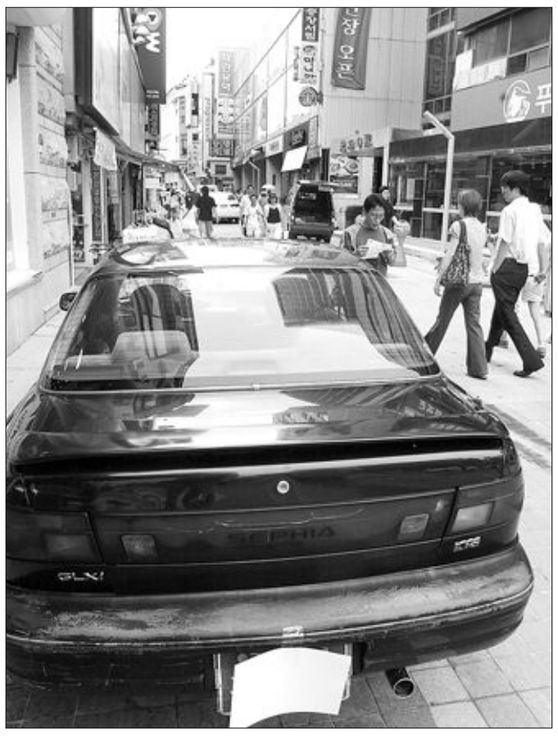
사진기자의 딴 짓

이 車 단속 됐을까요?



잘못된 짓인줄 알고 있기는 하나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 입구를 버젓이 차지하고 불법 주차된 차량을 봤더니 무인 단속기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흰 종이로 가렸더군요.

가림막도 필요없고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번호판을 구부러뜨리지 않아도 쉽게 가려지네요. 충장로 입구만 해도 주차장이 5개가 넘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차비가 비싸서요? 주차비 1천원 아깝다고 참 쉽게도 법을 어기네요. 그러면서 기름은 꼬박꼬박 넣을 테죠.

바쁘다고요? 5분 일찍 도착할 생각은 절대 안하시나 봅니다. 아니, 번호판에 흰 종이 갖다대고 테이프로 붙일 시간은 있으신가 봅니다.

얼마나 저럴까. 궁금해졌습니다. 오전 8시께부터 지켜봤는데,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오후 3시께 지나갈때도 여전히 차지하고 있더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자치단체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이동식 단속 카메라(승용차 차량 지붕에 카메라 달린 차량을 본 독자분들 많으실 겁니다)를 구입한 것,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도 약에 쓸 때는 없다는 말 아시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없는 것, 많지 않습니까.

이 차량은 단속됐을까요.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오늘의 유머

■계피떡

어느날 가래떡과 계피떡이 길을 가다 곱디고운 인절미를 봤다.

가래떡 : 야~ 인절미다. 정말 곱네~!

계피떡 : 곱긴 뭐가 고와? 넌, 저게 곱게 보이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계피떡은 속으로 질투를 하고 있었다.

이때 지나가다 둘이 떠드는 소리를 얼핏 들은 순진한 인절미는 너무 창피했다.

그래서 급하게 뛰어가는데, 그만 몸에 묻어있는 노란 콩가루가 바람에 막 날렸다.

그걸 본 계피떡이 신나게 지껄였다.

"거봐~!" 화장빨이지"

■목사님과 골프

골프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목사가 있었다.

어느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일요일 날, 갈등을 하다 결국 몸이 아파 못 간다는 전화를 교회에 하고 골프장으로 향했다.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에게 보고했다.

"저 목사를 혼 좀 내줘야 하지 않을 까요!"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골프장에 온 목사, 1번 홀에서 힘찬 스윙을 하자 볼은 뒤에서 부는 바람을 타더니 무려 250야드나 날아가 그린 위에 떨어졌다.

이어 볼은 데굴데굴 굴러 홀컵으로 들어갔다.

홀인원이었던 것이다.

목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놀라고 흥분했다.

천사는 뭔가 잘못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벌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며 천사에게 말했다.

"한 번 생각해 보아라! 저걸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혼자 주무시기 쓸쓸하시죠

옛날 시골 외딴 집에 밤에 길을 잃은 손님이 찾아와 자고 가기를 간청하자 아름다운 주인 여자가 나와 "실은 주인이 멀리 다니러 가서 저 혼자라…"며 꺼려하다가 나그네의 정상이 안되었던지.

"이 근처에 달리 집도 없고 하니 할 수 없군요" 하고 허락하였다.

나그네는 곧 사랑으로 안내되어 들어가 누었으나 너무나 절색인 미인 여자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주인 여자가 문을 두드리는지라 나그네는 잠이 들려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주인 여자가 하는 말씀이

"혼자 주무시기에 쓸쓸 하지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어찌나 가슴이 울렁거리든지 그만 말까지 더듬거렸다.

"그럼 잘됐군요. 길 잃은 노인이 또 한분 왔어요"

■화장의 세대론

10대 : 치장
20대 : 화장
30대 : 분장
40대 : 변장
50대 : 위장
60대 : 포장
70대 : 환장
80대 : 끝장

■세대별 부부의 잠자리

20대 : 포개져서 잔다
30대 : 마주보고 잔다
40대 : 천장보고 잔다
50대 : 등 돌리고 잔다
60대 : 딴방에서 따로 따로 잔다
70대 :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잔다

■부부 상태

10대 : 서로가 뭣 모르고 산다.
20대 : 신나서 산다.
30대 : 한 눈 팔며 산다
40대 : 마지못해 산다.
50대 : 가엾어서 산다.
60대 : 필요해서 산다.
70대 : 고마워서 산다.

뉴스퀴즈

80. 무장 세력 탈레반으로부터 풀려난 한국인 19명이 피랍 후 45일만인 2일 귀국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해 출국한 지 51일만에 고국 땅을 다시 밟은 것입니다.

봉사단원 23명은 7월19일 이 나라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가던 중 납치됐으며 지난달 13일 2명이 처음 석방된데 이어 이번에 19명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피랍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①아프가니스탄 ②우즈베기스탄 ③파키스탄 ④카자흐스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4일(음 7월 23일 辛丑)

子 36년생 천지간의 흐름을 잘 파악해라. 48년생 겨울날 언 땅을 만나는 형상이다. 60년생 형제 친척으로부터 말썽이 튕겨져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다. 72년생 내 것 잃고 누명쓰는 꼴이다. 84년생 소사 냉전을 조성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1, 34

丑 37년생 직장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다. 49년생 정중동하나 결과가 불미할까 두렵다. 61년생 문서로 인한 기만과 사기를 조심하라. 73년생 친구 형제로 인한 고통이 발생 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라. 85년생 현 위치에서 만족을 얻어라. 행운의 숫자 : 09, 36

寅 38년생 겉은 조용한 듯 하지만 속 고통은 있다. 50년생 직장생활의 침체와 재물의 불편이 얼어붙은 형상이다. 62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큰 득도 없다. 74년생 이성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21, 25

卯 39년생 좋은 일보다는 흉사가 중복된다. 51년생 땅은 얼어붙어 신체에 장애가 올수도 있다. 63년생 고역이 가중된 형상이다. 75년생 대고는 없으나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5, 26

辰 40년생 식물이 비료를 받는 듯 모든 일이 순조롭다. 52년생 안도의 숨은 돌리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64년생 마지막 불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76년생 길사가 있지만 지나치면 침체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17, 29

巳 41년생 새싹이 나오려면 고통은 어쩔 수 없듯이 감수하라. 53년생 남여사이에 숨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65년생 눈물 날 일이 생겨 날 수도 있다. 77년생 부부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발생하니 조심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2, 30

午 42년생 주변의 시끄러움이 나에게 몰려온다. 54년생 옛 것으로 인한 불편함이 신생되어 불편을 가중한다. 66년생 시비의 발생이 우려되고 구설수가 있다. 78년생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일이 중단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1, 35

未 43년생 주변 내고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55년생 남편과 자녀에게 불리한 입장이 발생될 수도 있다. 67년생 순조로운 진행은 있으나 배인 편에 간접상이 있을 수도 있다. 79년생 큰 투자는 안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04, 44

申 44년생 구사가 신사로 바뀌어서 괴로움을 주는 형상이다. 56년생 조상에 대한 것이 친척간의 불상사로 연결 될 수도 있다. 68년생 옛것으로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80년생 처가 일고를 당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8, 37

酉 45년생 전쟁이 발생한 형국이다. 57년생 가내 내분과 부부 언쟁이 발생하고 이사 변동이 있을 수 있다. 69년생 유쾌한 형상이고 길사로 연결 된다. 81년생 음흉은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서 길사로 다가온다. 행운의 숫자 : 07, 40

戌 46년생 윗사람에게 문서로서 사기 당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 58년생 친구로 인해서 침체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70년생 아랫사람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주라. 82년생 될 듯한 계획이 지연된다. 행운의 숫자 : 1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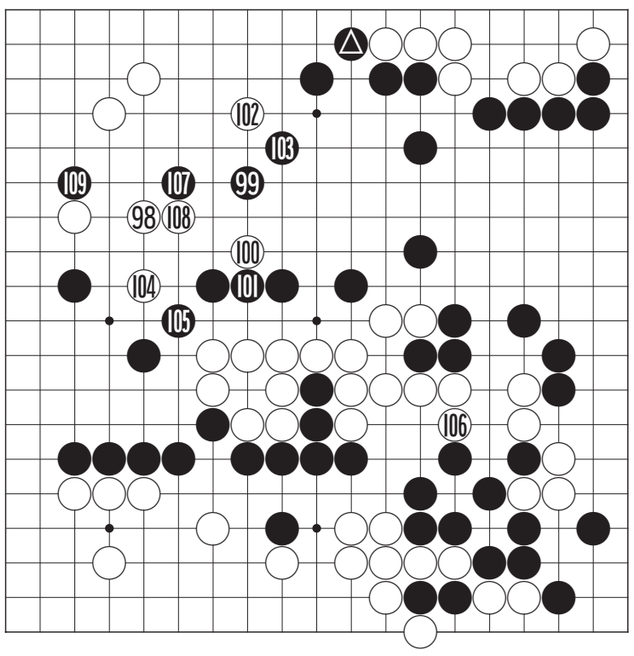
亥 47년생 뒤처리를 할 사람이 나타나 마무리를 한다. 59년생 타인의 속임수에 동참할까 두렵다. 71년생 주변의 꼬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83년생 새로운 싹이 찬 서리를 만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03,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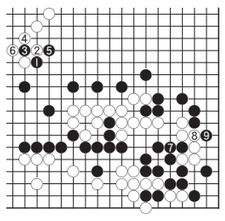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6회 랑일배 개인전 준결승 1국

흐름을 바꾼 대착각 7보(98~109)

白 이창준 5단 ((주)송림) 黑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참고도〉

흑 ▲가 또 착각이 빚어낸 대실수였다. 김영수 5단은 이 수가 선수라고 속단하여 무심코 막고 말았는데 우상귀 백 대마는 손빼도 살아있다.

이창준 5단은 이게 웬 떡이냐는 듯이 백 98로 또다시 요충지를 점령하며 신바람을 낸다. 이것으로 형세는 완연히 백 쪽으로 돌아섰다.우상귀에 집착한 몇 수가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흑 ▲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붙이고 5까지를 선수한 다음 7에 이어 백 대마를 잡으러 가는 수가 있었다.9까지 되면 도저히 백 대마가 살길이 없었다.

이제까지 강한 완력으로 승승장구해 온 김영수 5단이 정작 결승의 길목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승컵이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버린 것이다. 김영수 5단은 쓴 입맛을 다시며 109로 붙여 최후의 승부수를 날려간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이창호, 두달 연속 랭킹 1위

이창호 9단이 최근 한국기원이 발표한 프로기사 랭킹에서 2만862점을 획득, 1만9천770점을 따낸 이세돌 9단을 따돌리고 지난달에 이어 랭킹 1위를 고수했다.

이 9단은 지난 8월 중환배 우승 등 9승 2패의 성적을 거두며 랭킹 포인트를 755점 끌어 올리면서 지난 달 점수에 132점을 보탠 이세돌 9단을 제쳤다.

이 9단은 올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9단의 상승세에는 중환배 우승이 발판이 됐다. 이세돌 9단은 지난 달 7승 3패로 선전했으나 이창호 9단의 상승폭이 워낙 커 1위 탈환에는 실패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84>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사진 좀 찍어 주시겠습니까?

A :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B : All rights. Do I have to focus it?
A : No , you don't have to.
Just press the button , please.
B : This button?
A : Yes, that's it.

A : 사진 좀 찍어 주시겠습니까?
B : 좋습니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A :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버튼만 눌러주세요.
B : 이 버튼이요?
A : 네, 그것입니다.

* 자, 웃으세요. : Say cheese
* focus : 초점을 맞추다
* 이 미술관에서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 Are we allowed to take pictures in this art museum ?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984>

〈くみとり式(しき)トイレ〉ってことさ。

〈푸세식 화장실/재래식〉이라는 거야

A : お手洗いって聞(き)くと, ただ手を洗うところのようだけど。違(ちが)うんだね。
B : そう、日本ではトイレという意味(いみ)だから, 〈おつりの出るトイレ〉ってわかる。
A : 何それ, お金でも出てくるの。
B : いや, そうじゃないよ。〈くみとり式(しき)トイレ〉ってことさ。

A : 〈오테아라이〉라고 들으면 그냥 손을 씻는 곳 같은데, 다르구나.
B : 그래, 일본에서는 〈화장실〉이라고 하는 의미니까. 〈거스름돈이 나오는 화장실〉이라고 알아?
A : 그게 뭐야? 돈이라도 나오는 거야?
B : 아니, 그렇지 않아. 〈푸세식 화장실/재래식〉이라는 거야.

のよう : ~~와 같은
という : ~라고하는
だから : ~~이니까
おつり : 잔돈, 거스름돈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74>

预定了吗

예약 하셨나요?

A: 请问几位? 预定了吗?
Qǐng wèn jǐ wèi? yù dìng le ma?
B: 三位。没预定。有能唱中国歌的包厢吗?
San wèi. méi yùdìng. yǒu néng chàng zhōngguó gē de bāoxiāng ma?
A: 有, 请跟我来。
Yǒu, qǐng gēn wǒ lái.
B: 这间不错。
Zhè jiān bùcuò.

A 실례지만 몇 분이세요? 예약하셨나요?
B 세 명이요. 예약 안했어요. 중국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룸 있나요?
A 있어요, 저를 따라 오세요
B. 이 방 좋네요.

預定 [yùdìng] 예약하다
包厢 [bāoxiāng] 룸, 별실
跟 [gēn] ~와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7~8

한자 이야기 <601>

下馬評(하마평)

아래 하, 말마, 품평할 평

하마평(下馬評)은 말에서 내려 품평(品評)한다는 뜻으로, 예전에 관리들을 태워 가지고 온 마부들이 상전들이 말에서 내려 관아에 들어가 일을 보는 사이에 상전들에 대하여 서로 평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말이 대표적 교통수단이었던 시대에 궁궐을 비롯한 종묘, 공자 사당, 장군, 고관의 출생지 및 묘지 등은 금역(禁域)이라고 하여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곳을 지날 때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말에서 내리게 하는 하마비(下馬碑)를 세웠다.

이 하마비에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은 말에서 내리시오(大小人員皆下馬)'라는 글이 적혀 있기 때문에 가마나 말을 타고 왔던 주인은 걸어서 볼일을 보러 가야만 했고, 그 사이 가마꾼이나 마부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그들끼리 잡담을 나누게 되었다. 이때 그들이 모시는 상전이나 주인 등의 인사이동·진급 등에 관한 얘기도 곧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리켜 '하마평'이라 하던 것이 일상용어로 굳어져 관리의 이동이나 임명 등에 관한 풍설(風說)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지금의 관용차(官用車) 기사들이 나누는 정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